

기술 개요 (석재, 용머리 마루 장식 조형, 붉은 기와 복원)

류큐 왕국 시대, 정전에 사용된 석재의 대부분은 본섬의 세립질사암(니비누후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요나구니의 세립질사암을 채용합니다. 요나구니 사람들이 정전에 사용될 석재를 배웅하고 있습니다. 섬의 보물이 오키나와의 보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키나와 본섬으로 옮겨진 석재는 현대의 석공들에 의해 기둥의 받침돌로 가공됩니다. 이제부터 돌난간과 대롱주, 소롱주, 돌사자 등이 제작될 예정입니다.

정전의 지붕을 장식하는 용두마루 장식. 옛 사진 등을 분석해 가며 점토 모형을 제작합니다. 지식인과 함께 시행착오를 거쳐 점토로 용의 형태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검토 결과로 나온 점토 모형으로 석고 작업에 들어갑니다. 석고 원형의 형상이 굳어지면 드디어 본 제작에 들어갑니다.

정전에서 출토한 기와 모양을 디지털 기술로 분석하여 지식인과 논의를 거듭한 뒤 금형 제작에 들어갑니다. 기와의 아름다운 색상을 재현하고 내구성을 주기 위해서는 재료의 선정부터 불순물 제거, 소성시의 적절한 온도 관리 등을 판단하기 위한 시험을 몇번이고 시행합니다. 다양한 국면에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목재 조달

쿠니가미산 목재 오키나와 우라지로가시

외주부 초석

요나구니 세립질사암의 채석 및 가공

레이와 슈리성 부흥 이벤트 “요나구니 페스티벌” ~키야리우타(작업 노래) · 춤~

용두마루 장식

석고 원형 제작